



농심, 소아암 어린이 지원 대폭 확대
농심은 지난 4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올해 지원활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왼쪽부터) 농심 경영기획부장 황청용 전무,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허인영 사무총장 대행. /농심

세븐일레븐 제2회 세븐히어로 시상식 개최 '숨은 영웅' 3명에 감사패·상금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22일 우리 주변 숨은 미담사례 주인공을 찾아 포상하는 '제2회 세븐히어로' 시상식을 열고 숨은 영웅으로 선정된 3명의 주인공에게 감사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세븐히어로 대상으로 선정된 주인공은 세븐일레븐 건대예술점의 이병제 경영주(69)다. 이 경영주는 지난 7년간 점포에서 김밥, 빵, 음료 등 간식을 직접 구매해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후원하고 있다. 이 경영주가 지금까지 후원한 횟수는 총 200여회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본아이에프, 소아암 환아 가정에 상품권 기부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 '본아이에프'가 소아암 환아 가정에 상품권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본아이에프는 한빛사랑후원회를 통해 분즉을 포함한 본도시락, 분설렁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배선길 한빛사랑후원회 관리위원, 송민정 한빛사랑후원회 국장. /본아이에프

스타벅스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3억 투입 내달 12일까지 보호종료청년 모집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2021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호종료청년을 오는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스타벅스는 올해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아름다운재단에 전달한다.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일용직, 비정규직 취업으로 생활중인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보호종료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만 19세부터 24세 이하의 청년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홍경안의 시사일각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는 민통선과 인접한 동해안 최북단 마을이다. 한때 북쪽으로 약 6km 지점에 자리 잡은 통일전망대를 가거나, 금강산을 향했던 이들이 잠시 쉬어 가곤 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냉랭한 지금은 외지인이 대폭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안보관광을 명분으로 한 관광객들도 과거 같지 않다. 전반적으로 고요하다.

북한과 접경지역임을 체감하는 순간 현실의 고요는 이유 있다. 남과 북을 가른 155마일 휴전선, 명파리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7번 국도는 그 경계와 제약에 따른 현실의 온도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다.

이처럼 물리적 구획과 한계의 흔적들은 명파리에선 흔하다. 예를 들어 여름에만 한 달 남짓 개방될 뿐 평소엔 철책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

예술로 재해석한 분단과 평화

이 불가능한 명파 해변은 사실상 동강나 끊어 갈라진 역사를 증명하는 '통제의 선'이다.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세월 한편에는 옛 'DMZ비치하우스'가 있다. 명파리 바닷가에 홀로 자리한 이곳은 오래전 금강산 비로봉과 해금강을 보기 위한 실향민과 관광객이 잠시 머물거나 묵었던 숙박시설이었다. 실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장소이면서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상징으로 기억되는 유희공간이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변화와 여타 이유로 'DMZ비치하우스'는 최근까지 수년째 방치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섬처럼 존재했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를 남북 대치상황임에도 오히려 너무 익숙해 별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오늘과 닮은, 어색하고 낯선 평화만이 부유했다.

그런 그곳이 다른 표정으로 거듭나고 있다. 평화롭게 오히려 평화를 망각하는 현실과 불편함 속 안락함을 미학적으로 연구한 예술프로

젝트가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되면서 공간 특유의 서막한 침묵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바로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리 메이커)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Re: MAKER'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경기도·인천광역시가 협력 추진하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인 'DMZ문화예술삼매경'에 영연 'Re: MAKER'를 덧댄 프로젝트이다. 'DMZ문화예술삼매경'을 어미로 하되 'Re: MAKER 고성'과 'Re: MAKER 철원'으로 구분된다.

철원보다 한발 앞서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Re: MAKER 고성'은 건축물 외부 디자인부터 내부 오브제 하나까지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은 국내 단 하나의 '예술호텔'이다. 단순한 숙식의 개념을 넘어 삶과 일상의 접점 속에서 예술성과 지속가능성을 입힌 또 하나의 작품이다.

분단과 평화라는 이중적 장소를 미적으로 재해석한 해당 프로젝트에는 많은 시각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2020년 수립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오묘초 작가를 비롯해 다국적 그룹인 스포라_스포라, 스튜디오 페이즈 등이다.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신예진, 류광록, 홍지은, 박경, 박진홍, 김재욱 작가도 함께했다.

이들은 평화·생태·미래라는 주제 아래 주관기관인 강원문화재단의 장민현, 이린우 큐레이터와 소통하며 수개월에 걸쳐 모든 것이 정지된 낯은 공간을 개성 넘치는 '아트 룸'(art room)으로 탈바꿈시켰다. 자개 장인인 김종량을 포함한 일련의 작가들은 예술을 통해 한국의 분단을 새롭게 바라보고,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의 의미를 미술 언어로 다시 쓴 작품을 내놨다.

그 결과는 나쁘지 않다. 작은 미술관이 됐다. 안보 중심의 기존 DMZ의 이미지를 예술로 풀어낸 세상 하나뿐인 세계가 만들어졌다. 오는 4월 오픈 예정이다. /미술평론가

'2021 중앙언론 동문상'에 김승중 본지 편집국장 등 4인

방송·신문·광고·출판 등 4개 부문서 공로자 선정

중앙대학교 언론동문회는 '2021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김승중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사진), 김봉열 EBS 심의위원, 송광림 한국경제신문 광고국장(상무), 조범 MBC플러스 경영센터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승중 메트로신문 편집국장은 파이낸셜뉴스로 이직해 과학기술부장, 생활경제부장, 증권부장,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 역임한 뒤 2015년 메트로신문으로 자리를 옮겨 유통&라이프부장 등을 거치고 현재 편집국장을 지내고 있다.

김봉열 EBS 심의위원은 1990년 EBS 프로듀서(PD)로 입사해 편성기획부장, 채널전략부장, 외주제작부장, 심의실장 학교교육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송광림 한국경제신문 광고국장은 1988년 한국경제신문 광고국에 수



습사원으로 입사해 30여년 간 광고국에서 근무한 '광고맨'이다. 광고마케팅 1부장, 2부장, 3부장, 미디어 기획부장 등을 거쳐 현재 광고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조범 MBC플러스 경영센터장은 디지털조선일보에서 영상뉴스편성부 기자, 중국어뉴스팀장을 지낸 후 MBC플러스로 옮겨 전략기획팀장, 미래전략팀장, 제작센터장, 에브리원센터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경영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난 1983년 제정된 중앙언론동문상은 신문·방송·광고·출판 등 4개 부문에서 공로가 큰 사람을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ihj@

추신수, 신세계에서 뛰다 연봉 27억에 입단 계약

신세계그룹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자유계약(FA) 신분인 추신수와 연봉 27억원에 계약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신세계 측은 "추신수는 연봉 중 10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 계획은 구단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지난해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1억3000만 달러(약 1443억원)짜리 7년 계약이 모두 끝났으며, FA 신분을 얻었다.

추신수는 지난 2007년 4월 2일 실시됐던 해외파 특별지명에서 SK의 지명을 받았고 신세계그룹은 23일 오후 4시 야구단 인수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마트는 SK텔레콤이 보유한 와이브스 구단 지분 100%(보통주 100만주)를 10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매매 건은 향후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세계 야구단 계약서에 사인하는 추신수 선수가 신세계 야구단과의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신세계야구단

신세계그룹은 "추신수 측에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에 걸쳐 전달했고,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추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지만, KBO리그에서 뛰고 싶은 열망이 강한 덕분에 신세계그룹의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

- ◆국민권익위원회 ◇ 고위공무원 전보 △부패방지국장 한상석
- ◆ABL생명 ◇ 전무 승진 △재무실장 송민용 ◇ 상무 승진 △FC실장 윤문도
- ◆대구 수성구 ◇ 5급 승진 △행정지원과 비서실장 전상도 △홍보소통과장 김광희 △민원여권과장 김미애 △체육진흥과장 이영렬 △관광과장 김경철 △교통과장 이영수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승명 △범어3동장 김영수 △수성2·3동장 김만식 △중동장 김경호 △상동

- 장 김항수 △파동장 진용수 △지산2동장 박재영
- ◆조선대학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장 윤성명
- ◆원광대학교 △대학원장 송호준 △교무처장 김홍주 △학생복지처장 황진수 △인력개발처장 겸 대학일자리센터장 강지숙 △총무처장 장성철 △관리처장 송춘종 △창업지원단장 김성현 △SW중심대학사업단장 정성태 △과학관장 원형선 △학생생활관장 임태환 △평생교육원장 백현기
- ◆한국경정신문 ◇ 승진 △편집국 산업

- 부 부장대우 이상훈 △경영기획실 과장 대우 장준영
- ◆더원일보 △편집국 부국장 안영숙

부음

- ▲주용욱씨 별세, 주용수·주안호·주주영씨 부친상, 고수찬(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씨 빙부상 = 2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 발인 24일 오후 12시, ☎02-3010-2000
- ▲이영숙씨 별세, 장동화씨 부인상, 장우진(씨드스톤투자자문 대표)·장우석

- 씨 모친상, 이지수씨 시모상 = 22일 오전 1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30분, 장지 분당 자하연, ☎02-3010-2000
- ▲문기곤씨 별세, 안진우(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정보외사과)씨 장인상 = 22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2-2030-4444
- ▲이송의씨 별세, 심동준씨(뉴시스 사회부 기자) 조모상 = 2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 발인 25일 오전 7시30분, ☎02-2258-5973